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2018 VBS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교육부 스태프와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다음 주일 구역장 모임으로 모입니다.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후 12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오전 10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오후 12시 1층 예배실(유년부) / 2층 예배실(중고등부)
- 금요기도회: 오후 8시 본당
- 중고등부 금요성경공부: 오후 8시 1층 예배실
- 토요 새벽기도: 오전 6시 본당
- 구역예배: 구역별

6월 안내: 신미라 권사 / 7월 안내: 하영미 집사

다음 주 기도: 노미라 집사 (시편 130편)

이번 주 친교: 최경자 집사, 이영순 권사

다음 주 친교: 전영자 권사, 황인선 사모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5:14)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New York

담임목사: **이민영** / 914.874.3606(C) / mylee4x@gmail.com

교육부 전도사: **Edwin Kim** / 유년부 간사: **안정자**

지휘자: **임대영** / 반주: **이영미**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교사예배

<오전10시> 인도자: **Edwin Kim** 전도사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 Edwin Kim 전도사
 봉헌찬송 ----- “좋은신 하나님” -----다함께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행(Acts) 6:1-7** -----인도자
 설교(Sermon)----- “문제를 넘어” ----- 이민영 목사
 주기도문(The Lord’s Prayer) -----다함께

주일에배

<오후12시> 인도자: **이민영** 목사
 *입례찬송 (Opening Hymn) ----- 8장 (통9장) 1절 -----다함께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다함께
 *신앙고백(The Apostles’ Creed) -----다함께
 *찬송(Hymn) ----- 31장 (통46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시(Psalm) 9:9-20----- 김현정 권사
 찬양(Choir) ----- “나를 받으옵소서” ----- 세광 찬양대
 봉헌기도(Offering & Prayer) -----인도자
 성경봉독(The Word of God) ----- **행(Acts) 6:1-7** -----인도자
 인사 및 광고(Greetings & Announcements)-----인도자
 설교(Sermon)----- “문제를 넘어” ----- 이민영 목사
 *찬송(Hymn) ----- 518장 (통252장) “기쁜 소리 들리니” -----다함께
 *축도(Benediction) ----- 이민영 목사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지난 주 주일 설교 요약

예수의 이름이 (사도행전(Acts) 3:1-16)

나면서부터 걸지를 못해 40 평생을 앓아 구걸하던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성전 문을 넘지 못하던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온전하게 했습니다.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던 많은 사람들은 성전 문 앞에 앉은 이 사람을 함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온전한 사람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구걸이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스스로도 성전은 구걸하는 곳이고, 사람들은 돈 줄 사람들이지 하나님 안에서 형제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멈춰서서 이 사람을 주목했습니다. 성령님의 눈길이었습니다. 아무라도 그 마음대로 불러,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눈길이었습니다. 은과 금 따위가 아니라 “내게 있는 그것,”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다리가 온전해졌을 뿐 아니라, 생전 처음으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진 설교에서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온전케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온전치 않았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일 정도로 미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온전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순종할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자기 이익에 따라, 자기와 비슷한 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평가하지만,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봐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할 때에도 온전케 하시려고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다른 어떤 능력 이전에 우리를 온전케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의 구속입니다.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전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부끄러움의 문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아들로 예배하고 교제하게 합니다.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도 부끄러워 종 노릇하며 먹을 것이나 받으려고 돌아오는 탕자를, 아버지는 가장 귀한 아들 취급해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내미시는 하나님의 팔은 짓누르고 심판하는 엄한 팔이 아니라 달려와 안으시는 친절하신 팔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일으키지 못할 장애가, 끊지 못할 사슬이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믿지 못하는 것이, 나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일 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서로를 온전한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앓은뱅이를 일으킬 능력은 없을지 몰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목할 수 있습니다. 나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잡아줄 수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구원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